

# 축제 관련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이슈 도출 분석연구

이정원 · 이충호\*

한밭대학교

## Analytical Research to Identify Issues Using Online Media Related to Festivals

Jeongwon Lee · Choong Ho Lee\*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 mentor1023@daum.net / chlee@hanbat.ac.kr

### 요 약

무형의 관광자원인 지역 축제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된 상품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역별로 축제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으로 축제 이후 어떠한 이슈와 개선점이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지역의 축제들 가운데 매년 많은 인파가 다녀가고 있는 단양군 지역 내의 축제에 한정하여 구매를 위한 상용 데이터 수집에서 벗어나 온라인 매체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부정적 또는 긍정적 연관성에 따른 이슈를 시각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분석 연구를 수행 하였다.

### ABSTRACT

Local festivals, an intangible tourism resourc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tourism industry by developing specialized products and tourism products to develop the region. With a very high interest in festivals in each of these regions, much attention is paid to data analysis on what issues and improvements will be made after the festival. In this study, for festivals in the Danyang-gun area, where many people visit every year among festivals in various regions, the issue of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s is visually identifi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unstructured data, which is an online medium, free from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commercial dat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 키워드

Culture, Tourism, Festivals, Issues, Decision making

### 1. 서 론

무형의 관광자원인 지역 축제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된 상품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관광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 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 부족으로 질적인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2].

이러한 각 지역별로 축제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으로 축제 이후 어떠한 이슈와 개선점이 있을지

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 문화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 관광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3][4].

또한 주요 민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효과 및 축제 방문객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5].

본 연구는 여러 지역의 축제들 가운데 매년 많은 인파가 다녀가고 있는 단양군 지역 내의 축제에 한정하여 구매를 위한 상용 데이터 수집에서 벗어나 온라인 매체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및

\* corresponding author

분석하여 부정적 또는 긍정적 연관성에 따른 이슈를 시각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 II.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단양군 축제에 대한 온라인 매체인 블로그 및 뉴스 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이슈 키워드(Key word)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데이터 전체 현황을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매체인 네이버 블로그 및 충청지역 뉴스 등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환경으로는 R Program, R-Studio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연도	방문객 수(유/무료 합계)
2014년	2,441,965명
2015년	7,924,254명
2016년	8,115,071명



그림 1. 데이터 분석 환경

## III. 분석 결과

단양 지역의 공공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네이버 블로그 및 충청지역 뉴스 등의 온라인 매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방문객 인구, 축제 후기, 기사 및 관련 데이터 등의 정제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단양 축제 블로그 체험 후기 및 지역 뉴스 데이터의 온라인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여 키워드 및 워드 카운트 추출을 통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수행 하였다.

표 1. 단양군 축제 현황

축제명	주소
온달 문화축제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소백산 철쭉제	단양군 단양읍
금수산 감골 단풍 축제	단양군 상리
아로니아 축제	단양군 단양읍 상상의 거리
마늘 축제	단양군 단양 생태 체육공원

표 2. 단양군 관광지 현황

관광지명	유/무료 구분
고수동굴	유료
구담봉	유료
다누리아쿠아리움	유료
다리안 관광지	유료
대명리조트 단양 아쿠아월드	유료
소선암 자연휴양림	유료
온달관광지	유료
천동관광지	유료
황정산자연휴양림	유료
구담봉	무료
구인사	무료
도담삼봉	무료
사인암	무료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무료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무료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출장소	무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	무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	무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	무료

표 3. 단양군 연간 방문객 현황

[1] "지금부턴"	"온달문화축제"	"드라마"	"셋트"	"드라마"
[6] "셋트장하면"	"스티로폼"	"판넬"	"재질"	"단양군에서"
[11] "60"	"어미어미"	"금액"	"투자"	"해서"
[16] "보수"	"금액"	"투자"	"투자"	"만큼"
[21] "관람수입"	"활려시키는"	"의문"	"알면"	"지자체"
[26] "살아남기위한"	"물부림"	"온달문화"	"모습"	"고수"
[31] "동굴"	"했는대"	"시간"	"부족"	"해서"
[36] "여기까지만으로"	"만족"	"가족"	"맞아"	"해서"
[41] "부모님"	"여행"	"친구"	"카스메"	"여행갔다온"
[46] "사진"	"해기"	"사진"	"건축"	"축제"
[51] "장소"	"선택"	"소백산"	"활동"	"됩니다"
[56] "이것"	"저것"	"시간"	"부족"	"계획"
[61] "드라마"	"세트"	"이탈해"	"온달문화제가"	"축제"
[66] "불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	"풍성"
[71] "다양"	"매문"	"여행"	"계획"	"충북"
[76] "가볼만하거든요"	"온달문화축제들"	"연극"	"체험"	"거리"
[81] "시간"	"부족"	"이번"	"다음"	"패러글라이딩"
[86] "온달문화제"	"인기"	"산양"	"저렴함"	"만들기"
[91] "문패"	"만들기"	"은형"	"이름"	"말씨"

그림 2. 블로그 체험 후기 데이터 키워드 분석

[1] "올해 열린 35회 단양소백산철쭉제 기간동안 120여만 이상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해 축제 예산의 97억원보다 약 24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이날 단양소백산철쭉제 평가 보고회에서 울력 줄 같은 세명대는 지난 5월25에서 28일까지 열린 축제 기간 16만2684명 지난해 15만7505명이 방문객 숙박비 식음료비 등으로 1인당 7만4013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명대는 행사 기간 자기가입식 방식으로 리거드 설문지도를 이용해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역별 거주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외지 거주자로 나타났고, 40대 50대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이 주를 이뤘다. 축제 방문자의 체류 일수에서는 하루를 머물렀다고 답한 사람이 50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2일이 36.7퍼센트 3일이 7.3퍼센트 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6퍼센트였다. 인터넷과 홈페이지 tv 라디오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축제의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방문객이 대다수였다. 축제 서비스와 체험 프로그램 등 만족도를 물어본 대부분의 항목이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방문객 대다수가 축제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음식과 축제 기념품의 종류 품질 등도 평균을 훨씬 웃도는 4점대 후반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가격에 대해서는 4점대 중후반의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다. 주요 행사 중에는 철쭉가오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공연과 전시 및 판매 중 가장 인성 깊은 프로그램으로 단양 구경시장 공연을 꼽았다. 해마다 불편사항으로 지적 왔던 화장실 청결과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도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초반의 높은 점수를 받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교통혼잡과 주차시설부족 휴식공간부족 등을 가장 불편하거나 불편할 사항으로 꼽은 것은 풀이마 할 숙제로 남았다.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여행자를 통한 단체관광 상품 마련 등 홍보 마케팅의 다양성도 과제다. 단양문화원 관계자는 올해 소백산철쭉제는 전반적인 성과와 평가 보고서를 고려했... <truncated>

그림 3. 뉴스 데이터 키워드 분석



그림 4. 뉴스 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분석되었으나, “교통혼잡”, “부족”, “주차시설” 등의 부정적 키워드 빈도가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블로그 키워드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족”, “불편”, “주차시설” 등 부정적 키워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상용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분석의 부담으로 온라인 매체 축제 후기 및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추출, 정제, 키워드 분석 및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시각화 하였다.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군 내외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매년 방문객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양 축제 온라인 매체 후기 분석 및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부족”, “교통혼잡”,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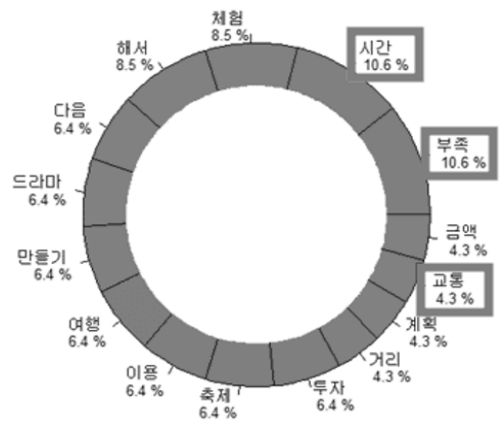


그림 5. 블로그 데이터 키워드 연관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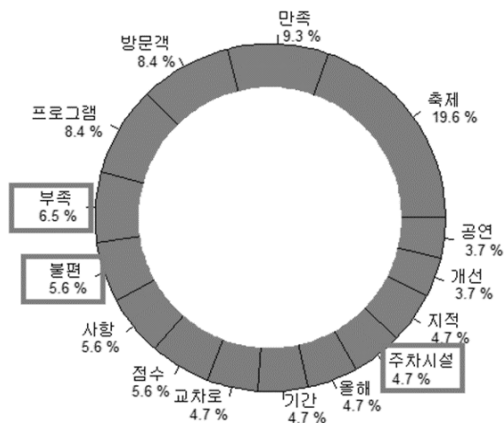


그림 6. 뉴스 데이터 키워드 연관성 분석

#### References

- [1] D. H. Choi, “The Effects of Recognition on Cultural Tourism Festivals on Festival Satisfaction and Festival Effects,” *Korean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0, pp. 339-346, 2018.
- [2] W. S. Shim, “Cultural Fusion Through the Linkage of Culture and Tourism,” *Korean Journal of Korea Tourism Policy*, Vol. 62, pp. 78-84, 2015.
- [3] H. S. Seo, “The Impacts of Physical Environments on Iksan Jewelry Festivals' Satisfaction and Revisit,” *Word of Mouth, Korean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4, No. 1, pp. 229-243, 2000.
- [4] Jenny Lee, “Visitors' Emotional Responses to the Festiv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Vol. 31, No. 1, pp. 114-131, 2014.
- [5] J. G. Park, T. Y. Cho and J. Y. Lee, “Research on how Environmental Cues of and Sightseeing Experience are Affecting on Aftermath of Local Festival,” *Korean Journal of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Vol. 13, No. 1, pp. 22-35, 2011.